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성령이여 내 영혼을/주님의 선하심	다같이
대표기도		김유리
*성경봉독	창 3:16~19	고현이
말씀	일터, 무엇이 문제인가?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삶의 예배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삶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산책

일터, 무엇이 문제인가? (창 3:16~19)

16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17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해 '먹지 마라'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8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19 네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터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우리는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의 원리를 일터에 적용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죄와 타락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창 3:16-19)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해산도, 남성의 땀 흘리는 수고도 영어로는 labor라는 것입니다. 즉, 죄와 타락의 결과로 labor, 우리 '일'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죄는 일의 산물이 충분치 못하도록 땅과 환경을 변질시켰습니다. (Work becomes fruitless.) 아담의 불순종은 땅이 저주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일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창조된 땅이, 힘들게 일해야만 열매를 맺게 변질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때가 되어서 허리케인이 와서, 산불이 와서, 가뭄이 와서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처럼 땅이 저주를 받다보니, 우리는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자원의 희소성/유사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죄는 일을 경쟁적이고 이기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Work becomes competitive and selfish.) 재원의 희소성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경쟁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남들보다 내가 우월해야 하는 경쟁심, 그러기 위해 나부터 챙겨야하는 이기심은 일터를 돌리는 기본원리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꼭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얻는 것 자체가 일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전 세계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 부의 불균형 사례) 죄는 세상을 급속도로 타락시켰고, 우리 세상과 일터와 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잃게 만들었음. (Work becomes pointless.) 죄는 인류의 삶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드는 the great equalizer입니다. 죽음은 어떠한 업적도 reset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전 2:17-18) 이렇듯, 일이 무의미해지자 사람들은 일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신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의 우상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Work becomes idolatry.) 그 대표적인 것이 재력, 권력, 명예, 인정, 자기만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상은 우리를 더더욱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결국 일중독 (workaholic)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일을 '필요 악' (necessary evil)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일터는 너무 세속적이라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으로 여기고,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전형적인 선데이 크리스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챤들은 세상 기준과 다른 눈으로 일터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첫 시간으로서 먼저 우리 일터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들이 무엇인지부터 좀 더 명확히 분별하야 하겠습니다. 각 직업군별로 그곳을 지배하는 세상적 가치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는 것자체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 소그룹 모임 때 여러분들은 직업군별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 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갈등들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점부터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달간 진행될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접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 나눔을 위한 가이드라인 (직업군별 나눔)

1.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 주세요. 특히,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얼마동안 해오고 계신지를 소개해 주세요.

2. 속한 직업군에서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겪으신 일 중, 기독교적 윤리관과 거리가 먼 사례를 나누어 보세요.

3. 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한 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지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4. 여지껏 나눈 대화를 기초로해서 속한 직업군에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 현상'은 무엇일지 나누어 보세요. (재력, 명예, 권력, 인정 등등)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도 솔직히 나누어 보세요. (무시, 편승, 저항, 인정 등)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싸이트 청년부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SCAN ME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횔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ANNOUNCEMENT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교회 지침은 마스크가 옵션이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직업별 소그룹 모임
8월에는 직업별로 모여 그 주의 설교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소그룹 : IT, 엔지니어, 비지니스/경제, 예술/미디어, 학생, 교육/Healthcare, 일반 사무 및 기타

2022년 수련회
수련회 신청 바로하기
기간 : 9월 2일(금)~4일(주일)
장소 :Camp Buckner(3835 FM 2342, Burnet, TX 78611)
강사 : 왕용민 선교사님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주제: 다시금 교회로! Back to Ecclesia!
표어:"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세움받고! 교회로 살아가자!"
회비 : 일반 $80,학생$75(가족할인: 두번째 사람은 $5할인, 조기등록할인(8/28까지: 각 $5씩)

KM-EM 합동 여름 아웃팅
일시 : 8월 20일 (토) 2시 출발
장소 : Natural Bridge Caverns (동굴탐험 & 바비큐)
(26495 Natural Bridge Caverns Rd, San Antonio, TX 78266)
구글 폼을 통한 선착순 신청

김상범 목사님 심방
심방신청 바로하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방하십니다.
가능한 날짜,시간을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줌,대면 심방 모두 가능합니다.

캠퍼스 사역 섬김이 모집
시기: 9월경부터 (월 4회, 1회당 약 1시간 모임)
장소: UT 캠퍼스
인원: 1~2명 (캠퍼스에 헌신할 마음이 있는 자)

찬양팀원 모집
건반 (1명), 베이스기타(배우고 싶으신 분들 환영) (문의:조학영)

토요한국학교 교사모집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참조 (사례비 지급)
문의: 김효진 집사 (hellozini@gmail.com)

생명의 삶 8월호 판매 (권당 5불)

토요 무릎 기도회
8월 13일, 20일, 27일 3주간 재정비를 위해 잠시 쉼을 갖습니다.

새가족/방문자 등록카드
(교회 웹싸이트 청년부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SCAN ME

ANNOUNCEMENT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50권 31호
AUG 07 2022

예수산책 어스틴한인장로교회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